

첨삭지도와 수정의 관점에서 고찰한 대학 글쓰기 연구 경향

주민재(연세대)

〈목 차〉

- | | |
|-----------------------|-------------------|
| 1. 첨삭과 수정 연구의 특성 | 3. 첨삭 및 수정 연구의 경향 |
| 2. 첨삭과 수정의 개념 및 상호 관계 | 4. 결론 |

1. 첨삭과 수정 연구의 특성

국내에서 대학 글쓰기에 관한 연구들이 본격화된 것은 대학의 교양교육 체제 변화의 시기와 맞물린다. 교양교육 강화¹⁾의 일환으로 각 대학에서 글쓰기 및 관련 과목의 신설이나 재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대학 글쓰기 연구들이 활성화된 것이다. 글쓰기 과목의 전신인 대학국어로는 ‘읽기-쓰기’라는 문식성 교육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글쓰기가 교양교육의 한 부분을 맡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

1)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수행되던 교양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한 것도 2000년대 들어 국내 대학들이 교양교육대학, 학부대학, 의사소통센터, 교양교육원, 교양교육센터 등의 이름으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수립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교양교육이 대학 내에서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잡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러는 대학들의 노력은 다각적으로 시도되었지만 핵심은 ‘글쓰기’를 교양필수 과목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글쓰기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이론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본격화되었다. 글쓰기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전까지 대학에서 ‘문식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대학 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수자들은 글쓰기 교수법의 체계화와 함께 대학 글쓰기 교육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병행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국내의 대학 글쓰기 연구들이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교육 방법 또는 수업 모형 활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는 현장 연구의 성격이 강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침삭지도에 관한 논의 역시 현장 연구의 성격이 강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도 대학 글쓰기 교수자의 교수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학생들이 지닌 글쓰기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 글쓰기 능력의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하는 교수자들에게 ‘침삭지도’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교수 방법이다. 그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침삭지도에 관한 교수자들의 경험은 ‘침삭지도 방법과 사례’, ‘침삭지도의 효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침삭지도 내용’ 등을 다루는 연구로 이어진다. 이런 연구들은 대개 개인적으로 축적한 글쓰기 교육의 노하우를 제시하는 형태를 띠므로 다른 교수자들에게 교수 방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교수 방법의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연구로서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일례로 교수자의 실제 경험들을 그대로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은 연구 대상 선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불어 연구 결과 역시 특수한 맥락 이상을 설명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침삭지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침삭과 수정의 개념 및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어느 한 쪽만을 다룬다는 점이다. 극히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²⁾ 침삭과 수정을 개념적으로

2) 구자황(2008)은 “우리에겐 침삭이나 퇴고가 훨씬 익숙한 개념”이지만 작문학 등에서 사용되는 수정(revision)이나 수정을 돕기 위해 행해지는 피드백(feedback)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로 구별하지 않는다. 첨삭과 수정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던 ‘첨삭’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은 그동안 일부 연구자들(구자황, 2008; 이은자, 2009; 최규수, 2009; 박상민·최선경, 2011; 최웅환, 2013)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지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첨삭과 수정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첨삭을 학생 필자의 ‘수정하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³⁾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쓰기 평가의 한 부분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과정 중심 쓰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 글쓰기 교육의 실정상, 교수자의 첨삭은 쓰기 평가의 차원에서 수행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첨삭이 효율적인 글쓰기 교수 방법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첨삭이 실제 수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글쓰기 연구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먼저 첨삭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첨삭과 첨삭지도의 개념을 구분한 후, 다시 첨삭지도와 수정의 관계를 규정할 것이다⁴⁾. 이와 함께 아직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첨삭과 수정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다. 첨삭과 수정의 영향 관계는 현재 대학들이 채택한 과정 중심 쓰기의 측면 그리고 첨삭과 수정 연구가 상호 보완의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첨삭과 수정을 다룬 연구들을 연구 경향에 따라 분류하여 그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 경향의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연구들이 지닌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 및 과제에

하면서 “글쓰기의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전환기에는 엄밀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민·최선경(2011)은 “첨삭이 교수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것을 ‘더하거나’ 부족한 것을 ‘빼는’ 행위라면, ‘수정’은 글쓴이가 스스로 자신의 글을 ‘바르게 고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원론적 차원에서 ‘첨삭’과 ‘수정’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 3) 첨삭지도가 학생들의 글 수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박상민·최선경(2012)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실험을 통해 첨삭지도가 학생들의 초고 수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험 대상이 1개 분반(40명)으로 많지 않아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첨삭지도 방식과 학생들이 쓰는 글의 성격에 따라 결과는 달리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첨삭지도가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용 및 반영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4) 최근 들어 첨삭과 첨삭지도를 구별하는 연구(최웅환, 2013)가 있었지만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

대해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고는 그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첨삭 및 수정 연구들이 지닌 특성과 논의 방향에 따라 구별하고 첨삭지도와 수정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서 첨삭과 수정 연구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데 의의를 두는 한편, 향후 두 개의 연구 흐름이 심도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2. 첨삭과 수정의 개념 및 상호 관계

2.1. 첨삭과 첨삭지도 개념의 차이점

국내에서 대학 글쓰기 교육의 연원은 오래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교양교육 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이다. 대학 글쓰기에 관한 초기 연구들이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로 시작한 것⁵⁾은 글쓰기 교육이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대학 교육 체제에서 존립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글쓰기 연구는 대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 시작된 교양교육으로서의 대학 글쓰기가 갖는 정체성과 교육 지향점에 관한 총론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실제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각론으로 전개되었다. 첨삭과 수정에 관한 연구들은 글쓰기 교육의 실제와 관련된 각론이라는 면에서는 일치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첨삭 연구는 실제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 교수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수정 연구는 실제 필자의 쓰기 과정 및 수정 양상이 지닌 필자의 인지적 측면을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첨삭의 사전적 정의는 “시문(詩文)이나 답안 따위의 내용 일부를 보태거나 삭제하여 고치는 것”(국립국어원)이다. 사전적 정의에서 ‘시문(詩文)’이라는 어휘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첨삭이라는 용어는 근대 이전에도 쓰였던 것으로

5) 이정옥(2005), 『대학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황성근(2005), 『대학 글쓰기 교육의 효과적 지도 방안』, 『정희모(2005),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정희모(2005), 『대학 글쓰기 교육과 사고력 학습에 관한 연구』, 『이황직(2006), 『사회과학 글쓰기의 논리와 과제』, 등은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들이 제안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대학 글쓰기의 학문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보인다. 첨삭이 “근대전환기 옛 문장 독본의 작문 원리나 일본의 독본(讀本) 및 강화(講話)류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라는 구자황(2008:325)의 논의는 이를 확인시켜준다⁶⁾. 박진숙(2009:106~112)은 1920년대 잡지 『동광』에서 이광수·주요한·김억이 독자들의 투고를 직접 첨삭하는 첨삭부(添削部)를 두었다는 천정환(2003:469)의 연구와 『별건곤』 등의 종합잡지에서 『동광』과 유사하게 독자들의 원고를 첨삭했다는 것을 근거로 첨삭 개념이 이 시기에 “다듬으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⁷⁾. 그러나 박진숙의 논의를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교육적 목적’에 기반을 두는 대학 글쓰기에서 첨삭은 글쓰기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학술적 담론으로 수용된 용어로서 보다 협의적 개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쓰이는 첨삭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현배(2010)의 논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현배(2010:58~59)는 첨삭이 “①오류를 바로잡는 지적, ②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언, ③교수자가 전수할 가치가 있는 글쓰기 노하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고 하면서 첨삭을 “규범 혹은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교수자의 지도 조언”으로 정

-
- 6) 구자황(2008:325)은 첨삭과 함께 퇴고(推敲)가 근대 이전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글쓰기에서 사용된 대표적 수정 원리로 본다. 최근까지도 국내의 일부 대학의 글쓰기 교재에서 퇴고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정 원리가 우리의 글쓰기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 7) 박진숙(2009)의 논의는 첨삭이라는 용어의 사적 의미를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대학 글쓰기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20년대 잡지에서 시행한 첨삭은 천정환(2003:467~470)이 지적한 것처럼 작가와 독자의 커뮤니케이션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당시 작가는 “대중들에게 존경을 받을만한 인물”(천정환, 2003:467)이었으므로 독자는 자신의 글을 유명 작가가 직접 ‘첨삭’을 한다는 사실에 매우 흥미를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잡지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독자들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상업적 전략의 차원에서 ‘첨삭부(添削部)’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박진숙은 ‘국정 교과서의 첨삭지도식 수정 지시’라는 신문 기사와 ‘사법 시험 첨삭지도 및 강평’이라는 표현의 예를 근거로 첨삭지도의 공통감각은 “특정한 목적 즉 계몽의 방향을 염두에 둔 의식적 조직, 필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문장 표현 수정을 수반하는 행위”(2009:110~111)로 본다. 하지만 현재 대학 글쓰기에서 말하는 첨삭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문장 표현 수정”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첨삭의 사적(史的) 의미나 공통감각이 대학 글쓰기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고의 시각은 대학 글쓰기에서 첨삭 개념을 규정한 지현배(2010:58~59)의 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글쓰기에서 첨삭은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필자를 유도하려는 교육적 의도가 강한 행위’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의한다. 세 가지 첨삭 개념에 ‘지적’, ‘조건’, ‘전수’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된 것 그리고 ‘교수자의 지도 조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건대 지현배는 첨삭을 쓰기 지도의 하나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지현배는 첨삭을 교수자의 영역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하지만 첨삭과 첨삭지도는 다른 개념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첨삭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첨삭에 교수 첨삭 외에 자기 첨삭과 동료 첨삭을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현배가 제시한 첨삭의 세 가지 개념 중에서 두 번째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말은 첨삭 개념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이다. 필자라면 누구나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글을 다듬는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첨삭과 첨삭지도를 묶는 지점은 ‘글의 완성도 높이기’이며 둘이 구별되는 지점은 ‘교육적 의도의 유무’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⁸⁾.

첨삭 주체가 필자가 아닌 타자인 경우에만 교육적 의도가 관철되는 첨삭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스스로 하는 첨삭에는 교육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첨삭은 ‘글에서 고치거나 삭제·첨가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첨삭 지도는 ‘필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첨삭을 통해 글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교육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첨삭과 첨삭지도는 행위의 교육적 의도 유무로 구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 글쓰기에서 논의되는 첨삭이 자기 첨삭⁹⁾이나 동료 첨삭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교수자의 첨삭을 가리키는 것¹⁰⁾도 첨삭과 첨삭지도의 경계를 흐리는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첨삭을 다루는 상당수의 연구들이 각기 다른 첨삭의 종류에 대해 명확한 개념적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¹¹⁾. 대표적으로 “첨삭과 수정은 주체가 다를

8) 첨삭지도는 “첨삭을 통해서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행위”로 보는 최용환(2013:342)의 견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9) 자기 첨삭에 대해서는 수정에 대한 논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할 것이다.

10) 글쓰기 교육에서 첨삭이 일반적으로 교수자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것은 첨삭을 “학생들이 찾지 못한 오류들을 교사가 찾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최용석, 2007), “학생이 쓴 글에 대해 평가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박정하, 1989)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 필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는 ‘교수자의 첨삭’은 첨삭 지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뿐”(최응환, 2013:343)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 첨삭은 교수자의 첨삭이며 결국 첨삭 지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수자의 첨삭을 첨삭 지도로 개념화하면 첨삭과 수정의 개념적 혼란은 거의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별히 첨삭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은 연구들은 모두 교수자의 첨삭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며 교수자의 첨삭은 첨삭지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할 것이다.

2.2. 첨삭지도와 수정의 연관성

수정은 “글쓰기 작업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들의 연쇄”(Sommers, 1980)이다. 여기서 ‘변화’는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정은 기본적으로 ‘필자가 스스로 상정한 ‘이상적 텍스트’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자신의 글에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수정의 주체가 ‘필자’라는 점이다. 과정 중심 쓰기에서 쓰기란 일종의 “자기 조정 과정”으로서 쓰기 주체는 글쓰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한다(이재승, 2002:21). 결과 중심 쓰기와는 달리 의미의 구성과 문제 해결 전략을 강조하는 과정 중심 쓰기에서 ‘내용 생성 및 조직 활동과 함께 수정하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재승, 2002:23)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정하기는 필자가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여 이상적 텍스트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는 인지 작용인 것이다.

수정은 필자가 “초고를 쓴 다음 내용과 형식을 고치는”(이재승, 1998:315) 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수정은 필자가 초고를 작성하면서 설정한 개념적·구성적 문제들을 재점검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이므로 필자는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 이에 반해 교수자 첨삭은 교수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학생 필자를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상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정

11) 대표적으로 “첨삭과 수정은 주체가 다를 뿐”(최응환, 2013:343)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 첨삭은 교수자의 첨삭이며 결국 첨삭 지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수자의 첨삭을 첨삭지도로 개념화하면 첨삭과 수정의 개념적 혼란은 거의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중심 체제에서 교수자의 첨삭은 의도와 상관없이 필자의 쓰기 과정을 단절시키는 부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지적을 고려하면 첨삭지도는 현재 대학 글쓰기가 채택한 과정 중심 접근과 본질적으로 조응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시각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교수자의 첨삭 내용은 학생 필자가 수용할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교수자의 첨삭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더라도 학생이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한다면 첨삭지도의 의도는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첨삭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나 반응에 대한 연구들(박상민·최선경, 2011; 지현배, 2011a)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첨삭에 대해 수용 여부는 물론 다양한 수용 태도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들은 교수첨삭의 의도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교수자들의 ‘막연한’ 믿음에 일침을 가한다. 사실 첨삭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첨삭지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구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 교수자의 첨삭지도가 학생들에게 온전히 수용될 것이라는 전제는 위험한 것이다. 학생 필자들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교수자의 첨삭지도를 그대로 수용을 하지 않을 수도, 혹은 자신이 인정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첨삭지도 내용을 모두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글쓰기 능력에 따라 텍스트의 실제 반영 정도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¹²⁾. 실제로 교수자의 첨삭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첨삭지도의 의의는 반감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첨삭지도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김신정, 2007:137)은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첨삭지도 연구가 필자의 실제 수정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수정 결과를 고려하는

12) 실제로 첨삭지도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첨삭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정도가 결과 해석에 반영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모두 학생들이 첨삭지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수행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후 첨삭지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첨삭지도 수용 정도를 측정하고 결과 해석에도 이를 반영한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첨삭지도 연구는 첨삭지도가 학생들에게 수용되는 양상과 이후 텍스트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첨삭지도의 목적이 단기적으로는 첨삭 대상인 글의 완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학생 필자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므로 첨삭지도의 효과는 학생 필자의 실제 수정 양상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교수자의 첨삭지도 내용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첨삭지도를 수용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수정에 반영되는 정도와의 차이 역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 수정 양상 및 수정 결과를 고려하는 첨삭지도 연구는 첨삭지도 후 작성된 수정본과 원본과의 대조 분석 그리고 학생들의 인터뷰 등의 교차 검증을 통해 실제 첨삭지도가 텍스트 수정의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두는 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용하는 첨삭지도의 내용과 실제 수용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첨삭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원활하게 수정하기’라는 일련의 단계들이 이루어지는 구도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수정과 첨삭지도 사이의 실질적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첨삭지도는 글쓰기 교수 전략만이 아니라 쓰기 평가의 범주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정 중심 쓰기에서는 개요 쓰거나 초고 쓰기 이후 교수자의 첨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수는 첨삭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학생들의 개요나 초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사실 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첨삭 역시 이루어지기 힘들다. 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첨삭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첨삭지도가 <개요쓰기 → 초고쓰기 → 수정하기 → 최종고 쓰기>라는 과정 중심 글쓰기의 단계 이행을 돕는 교수학습의 과정이자 쓰기 평가의 한 부분이라는 두 개의 범주에 걸쳐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해야 한다.

3. 첨삭 및 수정 연구의 경향

3.1. 첨삭 연구의 경향 및 특성

국내에서 대학 글쓰기의 첨삭에 관한 연구들은 최근 몇 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첨삭 관련 연구들이 짧은 기간에 비교적 활발히 진행된 원인은 첨삭지도가 글쓰기 교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수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자나 학생들에게 “글쓰기 수업에서 첨삭지도가 핵심 요소로 인식”(지현배, 2010:48)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학생들의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개별 첨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첨삭지도 방안을 모색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해지는 것은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첨삭 지도 방법을 활용하여 산출되는 긍정적 결과들도 교수자들의 연구 동기를 자극하는 요인일 것이다. 첨삭 연구의 상당수가 다양한 첨삭 방법의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교수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도 보다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교수자들의 현실적 필요의 결과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첨삭을 활용한 교수 사례들이 대부분 교수자들의 개인적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어 기존의 쓰기 이론들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수 방법은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구성주의와 같은 특정 이론을 토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첨삭지도에 관한 논의들이 보다 높은 정교함을 갖추고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적 기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첨삭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졌지만 크게 첨삭지도의 방법과 사례(최규수, 2001; 박진숙, 2009; 김경원, 2009; 염민호·김현정, 2009; 오윤호, 2008; 최선경, 2010; 김낙현, 2012; 김남미, 2012), 첨삭지도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 또는 요구 분석(최규수, 2009; 박상민·최선경, 2011; 지현배, 2011a), 첨삭지도의 원리와 개념 규정(최규수, 2001; 이은자, 2009; 최용환, 2013), 첨삭지도의 표준화 시도(나은미 외, 2009; 지현배·김영철, 2012)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부분의 논의들이 지닌 핵심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첨삭지도의 방법과 사례 연구

첨삭 연구에서는 첨삭지도의 방법과 사례 연구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교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글쓰기 교

수자들의 현실적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며 첨삭 연구가 교수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현장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연구들이 첨삭지도의 방법만을 제시하고 지도 방법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이 동반되지 않아 실제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일 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규수의 연구(2001)는 첨삭의 기술적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면서 첨삭지도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커뮤니케이션 피드백(communication-feedback)’을 위한 기술적 방법들을 제안하면서 첨삭이 “지적 사유와 표현 행위에 대한 ‘자극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은 이후 첨삭에 관한 연구들이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피드백(feedback)’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연구들은 다양한 첨삭지도 유형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이 목적으로 실제 첨삭을 통한 교육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와 새로운 첨삭 방법들을 적용하거나 정교함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연구들로 나뉜다. 김경훤(2009)과 오운호(2008)이 전자라면, 최선경(2010)과 김낙현(2012)는 후자에 속한다. 김경훤(2009)은 처방적 어법교육의 방법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처방적 어법교육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글에서 드러난 어법적 오류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학습을 통해 쓰기 과정에서 유사한 오류들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방적 어법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이 없어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오운호(2008)는 <구상하기 → 초안쓰기 → 수정하기 → 편집하기>의 단계별로 피드백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하지만 김경훤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시한 사례에서 단계적 피드백 방법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최선경(2010)은 동료첨삭에서 발견되는 유형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진단-처방-협의를 단계에 따른 동료첨삭 방법을 제안한다. 단계별 동료첨삭 방법을 통해 비판적 읽기와 첨삭지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료첨삭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므로 필자와 첨삭자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원활하여 교수자 첨삭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첨삭지도의 방법으로 개발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최선경의 연구는 첨삭방법을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김낙현(2012)은 학생들의 글을 분석한 자료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첨삭지도의 순위를 토대로 객관적인 첨삭지도 기준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첨삭지도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첨삭지도 유형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제안한 것은 일단 글쓰기 교수자들에게 새로운 교수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와 보다 효과적인 첨삭지도를 시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단계적으로 반복적인 첨삭을 통해 학생 필자가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과정 중심 글쓰기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첨삭지도의 방법과 사례를 다룬 연구들은 먼저 교수자들에게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데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첨삭지도가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첨삭지도의 방법에 관한 연구들은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일반론에서 벗어나 어법과 같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거나 교수자의 첨삭에서 탈피하여 동료 첨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첨삭지도 방법의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첨삭지도 방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수 효과를 개인적 경험의 차원에서 논의할 뿐, 구체적인 실증을 하거나 보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첨삭지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험을 통해 구체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연구 대상을 달리 선정하여 동일한 교수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제시한 교수 방법들이 특정한 맥락에서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3.1.2. 첨삭지도에 대한 학습자 반응 양상 및 요구 분석 연구

첨삭지도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양상 또는 요구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연

구들은 교수자가 선호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침삭지도의 방법과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글쓰기 교육에서 침삭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교수자라는 점에 주목해보면, 침삭지도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은 교수자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침삭지도의 일방향성은 교수자가 침삭지도를 통해 기대하는 교육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침삭지도에 대해 학습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수자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반응이나 요구 분석은 침삭지도의 수혜자인 학습자가 실제로 원하는 지도의 방향을 파악하고 교수자가 추구하는 방향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는 점, 앞서 살펴보았던 효과적인 침삭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도와 유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규수(2009)는 글쓰기 관련 과목 수강생(4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글쓰기 지식의 측면, 자기 성찰의 측면, 정서적 교류의 측면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응 양상을 정리했다. 그는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동료침삭을 통한 독자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오류 중심의 일회적 침삭지도가 학생들의 자기 성찰을 유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는 침삭지도의 체계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침삭지도는 글쓰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의 연구는 침삭지도가 학생들로 하여금 글의 오류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쓰기 자체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박상민·최선경(2011)의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다. 이들은 대규모의 글쓰기 수강생(454명)을 대상으로 침삭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침삭주체별, 침삭방법별, 침삭항목별¹³⁾로 분류하여 학생들이 침삭지도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밀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대비된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13) 침삭주체는 교수침삭, 조교침삭, 동료침삭, 조별침삭으로, 침삭방법은 지면침삭, 사이버침삭, 대면침삭, 공개침삭으로, 침삭항목은 '표현', '구성', '주제 및 내용'으로 나누었다.

은 교수의 지면참삭과 사이버 참삭을 가장 선호하고 글의 내용이나 내용 전개 등 텍스트의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과 함께 구체적인 참삭 내용 그리고 교수자의 격려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생들이 참삭지도에서 요구하는 바를 항목화하여 교수자가 설정해야 할 참삭지도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박상민·최선경(2011)의 연구가 참삭주체·참삭방법·참삭항목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했다면, 지현배(2011a)는 학생들이 참삭지도에서 바라는 항목들의 순위에 주목했다. K대 글쓰기 수강생(2,154명)을 대상으로 참삭희망항목을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글의 구성과 논리에 대한 참삭지도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먼저 지현배의 연구는 상당히 큰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간의 연구들은 교수자의 입장에서만 참삭지도를 논의했다면, 지현배(2011a)의 연구는 참삭지도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수정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삭지도의 수혜자이자 수정의 주체인 학생들이 참삭지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은 참삭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수자가 효과적인 참삭 방법과 내용을 채택하고 글쓰기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참삭지도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일레로 김낙현(2012:337)은 참삭지도 기준안에서 참삭지도의 순위를 정하는데 학생들이 글의 구성과 논리에 대한 참삭의 요구가 가장 높다는 지현배(2012a)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참삭지도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 분석 결과들은 교수자가 교수 방안의 구체적인 부분을 설정하고 체계화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교수자들의 참삭지도 방법에 대한 피드백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수자의 일방적인 참삭지도의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교수 방법의 개선 및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는 데 기초 자료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참삭지도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 분석은 앞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도해야 할 연구이다.

14) 조사 결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참삭항목의 순위는 글의 구성과 논리, 글의 독창성, 문장 수준, 어휘 수준이었다.

3.1.3. 침삭지도 원리와 개념 규정 연구

침삭지도의 원리나 개념 규정과 관련된 연구(최규수, 2001; 구자황, 2008; 이은자, 2009, 염민호·김현정, 2009)들은 기본적으로 침삭지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앞의 두 종류의 연구는 현장 연구 및 이를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면, 이 연구는 현장 연구들에서 각기 논의된 개념들을 정리하고 교수 방법의 원리 등을 논의하는 이론적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연구는 교수 방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선행된 후, 이를 적용하는 실증 연구들이 뒤따르지만 침삭 연구에서는 반대로 진행된 경향이 짙다. 그 이유는 침삭 연구가 교수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침삭은 교수자라면 누구나 글쓰기 교육에서 활용하는 교수 방법이므로 각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안하는 형식의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구자황(2008)의 논의이다¹⁵⁾. 그는 현재와 같은 글쓰기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전환기에는 전통적 개념의 침삭이나 퇴고와 같은 용어들과 수정 및 수정을 위한 피드백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부 연구자들이 전통적 개념의 퇴고나 침삭 개념을 그대로 대학 글쓰기 교육에 적용하는 방식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익숙했던 퇴고나 침삭 개념은 대학 글쓰기 교육이 채택한 과정 중심 글쓰기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퇴고나 침삭 그리고 교정 등이 글쓰기의 마무리 과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구자황의 지적은 타당한 것이다. 그는 수정(revision)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순환적 피드백과 연결시킴으로써 과정 중심 글쓰기에 적합한 침삭 방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의 주장은 수정의 주체와 수정을 위한 피드백의 주체가 다름을 교수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침삭지도는 수정을 위한 피드백일 뿐, 수정과는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이 국내에서 대학 글쓰기의 각 분야의 기초 이론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전통적 개념들이 재규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구자황의 주장은 시의적절했

15) 구자황(2008)의 연구는 「수정과 피드백이 글쓰기에 동인이 되는 방식을 위한 탐구」로서 수정과 피드백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그간 논의되었던 침삭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다고 볼 수 있다. 구자황의 논의는 첨삭지도와 수정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본고의 주장과도 맥락이 닿는다.

구자황의 논의와 아울러 이은자(2009)는 첨삭지도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한다. 그는 첨삭 피드백의 원리를 개별성, 대화성, 지속성, 구체성, 자발성의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첨삭지도의 이론적 측면을 다룬다. 단순히 ‘지도’가 아니라 ‘피드백’ 개념을 도입하지는 그의 주장은 염민호·김현정(2009)의 논의와 연결된다. 그들 역시 첨삭을 피드백으로 개념화하면서 피드백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글쓰기 피드백의 종류를 다루고 있다. 피드백 구성 요인을 ‘피드백 출처’, ‘피드백의 기능’, ‘피드백의 인지’로, 피드백의 유형을 ‘피드백의 성격’, ‘피드백의 영역’, ‘피드백의 차원’, ‘피드백의 주체’로 세분화하여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보다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첨삭에서 수정과 피드백 개념이 도입된 것은 현재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채택한 과정 중심 글쓰기의 성격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과정 중심 글쓰기는 쓰기 과정의 회귀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수정은 쓰기 단계 전체에 걸쳐 회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수자의 첨삭은 각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필자를 의미의 구성자로 상정하는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는 교수자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첨삭은 순환적 피드백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은자와 염민호·김현정의 주장은 타당하나 두 연구 모두 논의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첨삭지도와 구별되는 ‘첨삭 피드백’만의 구체적인 특성과 방법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추상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도’보다 ‘피드백’의 개념이 보다 순환적·환원적이라는 원론적인 논의 자체로는 이론적 생산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3.1.4. 첨삭지도의 표준화 연구

첨삭지도의 표준화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육이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 대학에서 단일 강좌로서 다수의 교수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글쓰기 교육은 교수자들에 따라 여러 영역에서 편차가 발생하는데 첨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첨삭지도의 표준화 시

도는 교수첨삭이 교수자에 따라 비중을 두는 영역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첨삭지도에서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첨삭지도의 표준화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세 개의 연구들을 토대로 하는 후속 연구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표준화 연구는 첨삭지도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차원의 연구이기 때문이다.

나은미 외(2009)는 온라인 첨삭 프로그램의 ‘첨삭 점검 목록’을 구축함으로써 교수자들 사이의 첨삭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첨삭의 서술방식이나 내용 및 구성적 측면의 편차 극복을 모색한다. 지현배·김영철(2013)의 연구는 교강사와 학생들의 표준 문장 선호도를 조사하고 첨삭 조언지를 통해 교강사에 따른 첨삭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실제 교수 방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첨삭 지도의 표준화는 첨삭자들의 첨삭 방식에 대한 양적 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연구 과정이 복잡하고 표준화 되어야 할 영역이 많아 신뢰도가 높은 연구 결과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표준화된 첨삭이 교수자의 교육 목표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들을 넘어서는 것도 또 다른 과제이다. 그러나 표준화된 첨삭은 강좌당 학생수가 여전히 많은 대다수의 대학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첨삭지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높으므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네 개의 연구 경향은 기본적으로 첨삭지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첨삭지도의 방법과 사례에서는 영역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활용하여 첨삭지도의 효과를 높이려는 연구들과 첨삭지도의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첨삭지도의 표준화는 교수자의 개인적 성향의 차이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비교적 동일한 수준과 내용의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연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각의 연구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학습자 반응 양상 및 요구 분석이나 표준화 연구를 제외하고는 실증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첨삭

지도는 교수 방법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증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교수 경험으로 그치기 쉽다. 이와 함께 첨삭지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교수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첨삭지도 방법을 뒷받침하는 이론과의 접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더불어 학술적 가치도 높지 않다. 단지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교수 방법을 제안하는 형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개인적 교수 경험이라는 것은 특정한 맥락과 조건에서만 유용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2. 수정 연구의 경향 및 특성

대학 글쓰기에서 수정에 관한 연구는 첨삭 연구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¹⁶⁾. 첨삭 연구들의 상당수는 연구자의 교수 경험을 그대로 다룬다. 이러한 현상은 첨삭의 개념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들이 ‘교수자의 첨삭지도’라는 의미가 내포된 상태로 첨삭이라는 용어를 인식하고 사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수정은 revision의 역어로서 대학에서 ‘학문적 차원으로서의 쓰기 교육’의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가운데 정착된 것으로 그간 연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했던 용어이다.

국내 수정 연구들은 교수 경험에 기반을 둔 첨삭 연구와는 달리 미국의 선행 연구들에게서 받은 영향이 크다. 1980년대 미국에서 수정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인지주의 학자들에게 힘입은 결과이다. 인간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었던 인지주의 학자들이 쓰기를 적합한 연구 대상으로 인식한 것이다¹⁷⁾. 그들은 수정 행위가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인지 작용을 규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인지주의 학자들의 연구는 쓰기를 지식의 나열이 아닌 의미의 구성 행위로 재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지주의 영향에 힘입어 연구자들은 쓰기 과정을 관찰하

16) 초·중등 글쓰기의 수정에 대해서는 성숙자(2003), 성은미(2003), 박태호(2005), 신화연(2005) 등이 논의한 바 있지만 본고에서는 대학 글쓰기에 관한 연구만을 다루기로 했으므로 따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17) 쓰기의 인지적 관점에 대해서는 이재승(2002:38~43)을 참조.

면서 필자의 인지작용을 분석하고 이는 다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쓰기 교육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지주의적 측면에서 쓰기를 분석하려는 연구 경향은 국내 쓰기 연구에도 영향을 끼치면서¹⁸⁾ 쓰기 주체인 필자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수정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교수 경험을 그대로 연구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첨삭지도와는 달리 수정의 주체는 학습자이기에 수정 연구는 텍스트 수정 결과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연구의 기초 자료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첨삭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 과정이 복잡하고 결과 도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정희모(2009:334)가 지적한 것처럼 수정 연구는 “수정에 관한 일관된 법칙을 찾기 어렵고 사람마다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정희모의 지적은페이즐리와 비테(Faigley & Witte, 1981)가 말하는 ‘상황적 가변성(situational variables)’과도 상통한다. 페이즐리와 비테는 수정 연구에서 ‘필자가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갖가지 요인들, 이른바 상황적 가변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상황적 가변성을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¹⁹⁾. 연구자가 필자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과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다면적 접근이 충족되어야 한다. 짧은 시간에 글쓰기의 각 분야에 연구 성과를 내고 교수법을 개발·축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국내 대학 글쓰기 여건상, 교수 경험에 기반을 둔 수정 연구에 비해 첨삭 연구가 더 활발히 수행된 이유를 이러한 현실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첨삭 연구와 분리되어 수정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일차적으로 미국의 연구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거론될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18) 수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다른 정희모의 연구(2009)가 “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를 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 페이즐리와 비테(Faigley & Witte, 1981:410~411)는 텍스트 작성 이유, 매체, 장르, 쓰기 과제와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이해도 및 인지도, 독자에 대한 친밀도, 텍스트의 길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필자의 수정 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염두에 두지 않는 연구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이 쓰기 주체인 필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본격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과정 중심 쓰기 교육과도 무관하지 않다. 의미 구성 과정을 강조하는 과정 중심 쓰기에서는 의미 구성 주체인 필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쓰기 연구 및 교수방안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자의 쓰기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수정 연구는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수정 방법 및 양상을 비교하거나 초고와 수정고의 차이를 분석하여 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자의 인지적 변화를 추적하고 탐구할 수 있으므로 수정 연구는 쓰기 과정을 필자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수정 행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거시적으로는 대학 공동체에서 채택한 쓰기 교육의 방향, 미시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교수방안 개발과 관련하여 쓰기 주체인 필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대학 글쓰기 연구에서 수정 연구의 본격적인 물꼬를 튼 것은 정희모(2009)이다. 그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수정을 “필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필자 자신의 텍스트 수준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행위로 규정한다. 그는 초고를 작성하는 의미 생산 과정과 완성된 초고를 수정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다른 활동으로 간주하면서 수정은 초고를 통해 생산된 의미를 필자가 도달하려는 목표에 맞게 고치는 행위로 본다. 즉,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 내내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려는 목표 텍스트²⁰⁾와 자신의 실제 글을 비교하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수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수정 과정에서 끊임없이 현재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를 비교하면서 필자가 반성적 사고(reflection)를 하는 것은 그의 의식에서 자동화되어 일어나는 인지 작용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정희모는 이러한 인지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 구조로 개념화한다. 그는 헤이즈(Hayes)의 통제 구조 개념을 기반으로 지적·문화적 배경 요소, 수정 목

20) ‘목표 텍스트’는 정희모(2008)가 제안한 개념이다. 정희모는 바틀렛(Bartlett, 1982:349)의 대안적 텍스트(alternative text)는 글쓴이가 자신의 글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임의적 표상이므로 필자가 원하는 궁극적 목표의 재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비해 목표 텍스트는 필자가 표현하려는 의도를 구현한 이상적 텍스트의 이미지로서 쓰고자 하는 목적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표와 수정 맥락 등의 요소를 추가·확장하여 필자가 텍스트 수정을 하는데 필요한 문제 진단과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인지 작용의 근거로 파악한다. 정희모의 연구는 필자가 텍스트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지 작용의 구조를 체계화함으로써 이후 실제 수정 양상을 분석하거나 효과적인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의 창안에 이론적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수정 행위를 필자의 인지 작용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연구 경향은 구자황(2008)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글쓰기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필자의 수정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구자황(2008)의 논의는 수정에서 발생하는 필자의 인지 작용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과제점검표, 돌려읽기 평가표, 평가기준표 등을 제시하는 것은 필자에게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자가 반성적 사고를 함으로써 수정 과정에서 필자의 인지 작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희모(2009)와 구자황(2008)의 연구가 수정의 이론적 접근이라면, 정희모·이재성(2008)과 박상민·최선경(2012)의 연구는 첨삭지도와 수정의 관계를 객관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규명한 실제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적 연구들은 첨삭지도가 수정 과정에서 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첨삭이 실제 필자의 수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첨삭지도 및 수정과 관련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정의 실제적 연구들은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첨삭지도 연구가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정희모·이재성(2008)은 첨삭 방법 중 교수 첨삭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일반적인 관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다양한 첨삭 방법(자기 첨삭, 동료 첨삭, 교수 첨삭) 중에서 어느 방법이 필자의 수정 과정에서 항상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첨삭의 효과가 첨삭 주체만이 아니라 과제 종류, 학생 태도, 수업 상황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살펴본 페이즐리와 비테(Faigley & Witte, 1981)의 '상황적 가변성(situational variables)'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의 연구는 필자를 둘러싼 여

러 맥락과 조건들이 수정의 방향과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다만 연구자들로 지적했듯이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질 때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주장은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상민·최선경(2012)은 수정 전후 글의 변화 양상의 분석을 통해 첨삭지도의 효용성을 살펴본 것으로 본고에서 언급한 첨삭지도와 수정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생 수준(상·중·하)에 따라 첨삭 지도가 수정에 미치는 양상과 평가 항목별로 나타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자들은 먼저 수정하기를 “자신의 글을 객관화시켜 바라보며 사유를 확장하는 발견과 재창조의 과정”(박상민·최선경, 2012:171)으로 규정하면서 수정 과정이 필자의 반성적 사고를 유발하는 동시에 사유를 확장하는 측면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수자 중심의 첨삭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쓰기 주체인 필자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자들의 사고 전환은 학습자의 측면에서 첨삭지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로 가시화된다²¹⁾. 하지만 첨삭지도의 주제 및 첨삭지도의 항목과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분석대상이 적어(상·중·하 총 3명)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는 제한적이다. 이와 함께 수정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활용하는 수정 방법을 규명한 연구(주민재, 2008)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유지, 분리, 접합, 변화, 재배열, 첨가, 대체, 삭제’의 8가지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에 제시된 수정 방법의 종류를 확장하고 있다.

수정 연구는 수정 행위의 주체인 필자에 초점을 맞추어 쓰기 과정에서 필자의 인지 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교수 방법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수정 연구가 진행되면서 실제 수정 과정을 파악하여 첨삭지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시도된 것은 수정 연구가 갖는 가장 큰 의의라 하겠다. 물론 수정과 관련한 미국의 인지주의 연구나 정희모(2008) 등의 이론적 논의가 실제 쓰기의 차원에서 규명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수정 연

21) 실제로 다수의 평가자(10명)의 평가 점수의 변화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은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구는 첨삭지도의 효과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만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 연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수정하기를 첨삭지도 효과 검증만이 아니라 텍스트 작성 이유, 매체, 장르, 쓰기 과제와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이해도 및 인지도, 독자 고려 등 필자를 둘러싼 쓰기 조건 및 다양한 맥락들이 수정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일한 쓰기 과제를 다양한 쓰기 조건 및 맥락에서 부여함으로써 수정하기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거나 매체나 장르에 따른 수정 패턴과 특성 비교, 독자에 대한 이해도가 수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다각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4. 결론

현재 국내의 대학 글쓰기 연구가 더 많은 질적인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첨삭과 수정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개인적인 교수 경험에서 벗어나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고 다각적 분석을 통해 연구 성과의 설득력과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첨삭지도가 수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만 현재 둘 사이의 영향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들이 첨삭지도 내용이 학생 필자의 수정에 온전히 반영된다는 일종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쓰기 과제나 주제 또는 장르에 대한 이해도, 독자 고려의 정도 및 필요성의 인식 여부 그리고 쓰기 능력과 동기 등 학생 필자를 둘러싼 상황적 가변성에 따라 첨삭지도 내용을 수용하는 정도는 차이가 날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첨삭지도나 쓰기 교육 방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첨삭 연구와 수정 연구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첨삭 연구 및 수정 연구의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향후 지향해야 할 연구 방향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삭, 첨삭지도, 수정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관계 설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첨삭 개념은 자기 첨삭까지 포함하므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교수자의 첨삭지도와 의미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첨삭지도와 수정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첨삭지도가 수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정 연구의 결과는 첨삭지도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통한 현실적인 논의들이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첨삭지도의 역할 및 첨삭지도에 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둘째, 첨삭 연구는 실증적인 방법들을 활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학 글쓰기 연구자들은 대부분 다년간 글쓰기 교육을 해왔고 이를 통해 축적된 교수 방법 및 노하우를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지도방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이 생략된 채 일방적인 제안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교육 노하우나 개인적 시도에 따른 교수 경험을 연구에 그대로 직결시키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희모·이재성(2008)이 교수 첨삭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일반적 관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첨삭 방법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했기 때문이다. 현장 연구를 할 경우에는 자신의 교육 방법이나 경험과 연결되는 적절한 이론적 배경 및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교수 방법의 적합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한 후, 체계적인 실험 계획을 설계하여 객관적인 결과 도출이 이루어져야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실험 결과를 근거로 동료첨삭이 수정 후 텍스트에서는 내용 전개와 일관성과 단락 사이의 논리성이 향상되었다고 말하면서 글의 구성 요소 각각에 대한 첨삭 효과는 동료첨삭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둔다고 주장했다. 동료첨삭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다수의 연구자들이 언급했지만 동료 첨삭이 실제 수정에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는 별로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다. 정희모·이재성(2008)과 박상민·최선경(2012)의 연구는 첨삭이 실제 수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교수자들이 첨삭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첨삭지도나 수정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 접근이 보다 적극적으로

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들은 예외 없이 양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이 지닌 특정한 경향성을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첨삭지도가 학생들의 수정하기에 수용되는 구체적인 양상이나 첨삭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현배(2011b)가 제시한 학생들이 ‘글쓰기 교수자에게 바라는 것’을 자유롭게 서술한 것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미흡하게나마 학생들이 첨삭 지도에서 원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장기간의 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는 질적 연구는 학생들이 교수자의 첨삭에 대해 취하는 태도, 첨삭 결과의 수용 정도와 방식 그리고 글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측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첨삭지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황, 『수정과 피드백이 글쓰기에서 동인이 되는 방식을 위한 탐구』, 『어문연구』 56집, 2008.
- 김경섭, 『독백적 ‘침삭’에서 대화적 ‘수정’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49집, 2009.
- 김경현, 『대학 글쓰기 교육의 침삭 지도 사례』, 『새국어교육』 83집, 2009.
- 김민정, 『진단평가를 활용한 글쓰기 과정과 전략의 지도 방안』, 『작문연구』 4집, 2009.
- 김낙현, 『대학 글쓰기 교육의 효과적인 침삭 지도 방법에 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6-2, 2012.
- 김남미, 『대학 학습자 글쓰기의 침삭 지도 방안』, 『우리말연구』 30, 2012.
- 김병길, 『대학 글쓰기 평가 방법과 실태 연구』, 『작문연구』 8집, 2009.
- 김설희, 『한국 대학생의 글쓰기 침삭 지도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신정,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글쓰기 센터의 역할-미국대학의 운영 사례』, 『작문연구』 4집, 2007.
- 나은미 외, 『대학 글쓰기에서의 침삭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 방안』, 『한성어문학』 28, 2009.
- 박상민·최선경,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침삭 지도의 실제적 효용 연구』, 『작문연구』 16집, 2012.
- 박진숙, 『침삭 지도라는 공통감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개선 방향』, 『반교어문연구』 26, 2009.
- 염민호·김현정, 『대학 글쓰기 교과에 활용 가능한 피드백의 특성과 방법』, 『새국어교육』 83, 2009.
- 성은미, 『고쳐쓰기 활동의 사례 분석을 통한 작문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35집, 2003.
- 성숙자, 『협동학습과 독창적 논증문 쓰기 지도 : 고쳐쓰기를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5집, 2003.

- 오윤호, 「대학 글쓰기의 효과적인 피드백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25집, 2008.
- 이은자, 「교사 첨삭 피드백의 원리와 방법」, 『작문연구』 9집, 2009.
- 이은진, 『논술 교육에서 첨삭지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재승, 「쓰기 과정에서 교정의 의미와 양상」, 『국어교육』 97, 1998.
 _____,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교육과학사, 2002.
- 이정옥, 「대학 글쓰기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작문연구』 1집, 2005.
- 이황직, 「사회과학 글쓰기의 논리와 과제」, 『작문연구』 2집, 2006.
-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1집, 2005.
 _____, 「대학 글쓰기 교육과 사고력 학습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5권, 2005.
 _____, 「글쓰기에서 수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4집, 2009.
 _____·이재성, 「대학생 글쓰기의 수정 방법에 관한 실험 연구: 자기첨삭, 동료첨삭, 교수첨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3집, 2008.
- 주민재, 「대학 글쓰기 수정 교육에 관한 수업 모형 연구」, 『작문연구』 6집, 2009.
- 지현배, 「첨삭의 항목별 효용과 글쓰기 지도 전략」, 『우리말글』 48집, 2010.
 _____, 「글쓰기 첨삭 지도의 실태와 수강생의 반응 분석」, 『대학작문』 2집, 2011a.
 _____, 「글쓰기 효능감을 고려한 첨삭 지도 전략」, 『대학작문』 3집, 2011b.
 _____·김영철, 「첨삭의 표준 문장과 첨삭 조언지 활용 사례」, 대학작문 4집, 2012.
 _____, 「대학생 글쓰기 클리닉 사례를 통해 본 ‘개요 작성’ 지도 모형」, 『교양교육연구』 7-2, 2013.
-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 최규수, 「첨삭 지도의 원론적 방식과 효율적인 지도방법의 제안」, 『이화어문논집』 19집, 2001.
 _____, 「첨삭 지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반응 양상과 교육적 효과의 문제」,

- 『반교어문연구』 26집, 2009.
- 최선경, 「첨삭지도를 통한 글쓰기 교육 방안」, 『한민족문화연구』 35, 2010.
- 최용환,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첨삭 지도」, 『교양교육연구』 7-1, 2013.
- 황성근, 「대학 글쓰기 교육의 효과적 지도 방안」, 『작문연구』 1집, 2005.
- Bartlett, E.J., Learning to Revise : Some component Processes, In Nystrand, M. *What Writes know*, Academic Press, 1982.
- Bridwell, L., Revising strategies in twelfth grade students' transactional writing,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14, 3, 1980.
- Butler-Nalin, K., Revising Patterns in Students' Writing, In Arthur N. Applebee (Ed). *Context for Learning to Write*, Ablex P.C., 1984.
- Faigley, L. & Witt, S., Analyzing Revisi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32 No.4., 1981.
- Huff, R.K., Teaching Revision : A Model of the Drafting Process, *College English*, Vol.45 No.8, 1983.
- Kennedy, X.J., Kennedy, D.M., Muth, M.F., *Writing and Revising*, Bedford/St. Martin's, 2007.
- Sommers, N., Revision Strategies of Student Writers and Experienced Adult Writers,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Vol.31 No.4., 1980.

【국문초록】

본고는 그간 국내에서 연구된 첨삭지도와 수정에 관한 논문들을 대상으로 대학 글쓰기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서 혼재되어 쓰였던 첨삭과 첨삭지도 개념을 구별하고 아울러 첨삭지도와 수정하기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 및 첨삭에 관한 연구가 수정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첨삭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첨삭지도의 방법과 사례 연구, 첨삭지도에 대한 학습자 반응 양상 및 요구 분석 연구, 첨삭지도 원리와 개념 규정 연구, 첨삭지도의 표준화 연구 등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반응 양상 및 요구 분석 등의 일부 연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개인적 교수 경험이나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어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만 보다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수정 연구에서는 수정 연구의 연원을 살펴보고 국내 연구의 경향 분석을 통해 연구의 특성들을 고찰하였다. 첨삭 연구 및 수정 연구의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 향후 지향해야 할 연구 방향 및 내용은 첨삭, 첨삭지도, 수정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관계 설정에 대한 보다 세밀한 논의, 실증적인 연구 방법의 활용을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성 높이기, 그리고 양적 방법 일변도의 연구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질적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의 활성화로 정리할 수 있다.

주제어 : 첨삭, 첨삭지도, 수정, 첨삭지도와 수정의 상호 관계

【Abstracts】

Considering tendency of college writing studies from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and revision.

Joo, minja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sis research tendency of college writing through theses about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and revision and discuss researcher have to carry out studies in futur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constructed by doubt about phenomenon conceptual confusion between writing correction and revision or between writing correction and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conceptual distinguish between writing correction and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analysis interrelation between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and revision. The domestic studies about writing correction fall into four categories, cases of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student's reaction & demand analysis, principles and concept of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and standardization. But almost studies only deal with theoretical discussion, therefore, it is need to be adopt empirical studies for application result of studies to real education environment. In the revision studies, it looked at origin of revision studies and considered characters through analysis of tendency about domestic studies. The findings of analysis studies about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and revision show that detailed discussion about categories, concept and setting of relation, application of empirical studies methods and vitaliz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Key word : writing correction,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revision, interrelation of correction method of teaching and revision.

이 논문은 2014년 1월 12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